

세계의 당뇨병 소식

프랑스

당뇨병 퇴치를 위한 새로운 실마리

2025년까지 세계적으로 당뇨병 환자의 수는 두 배가 되어 3천만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행병'이라는 표현도 무색하지 않게 미국에서는 매해 6%씩 증가하고 있고, 현재 150만의 환자 수를 헤아리고 있는 프랑스도 20년 안에 3백만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제 1형 당뇨병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립보건 의료연구소는 보다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인 제 1형 당뇨병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의 골자를 발표했다.

360만 유로를 지원받게 되는 프로그램의 3대 연구의 축은 첫째, 어린이나 청소년 시기부터 발병할 수 있는 당뇨병에 대한 유전적인 연구와 당뇨병의 발병에 기여하는 유전자들의 비활성화를 기초로 예방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면역학적, 임상학적 차원에서 전형적인 환자집단을 처음으로 광범위하게 관찰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인데, '제 1형 당뇨병의 유전학협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국적의 과학자들이 최소한 두 아이가 당뇨병에 걸린 4500여 가계를 중심으로 정보를 축적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파리 네커병원의 연구원들은 '췌장 베타세포'의 파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치료접근법을 연구한다. 건강한 사람에게서 이 세포는 충분한 양의 인슐린을 생산하지만, 제 1형 당뇨병 환자들에게서는 췌장의 베타세포에 염증이 유발된다. 최근 과학자들은 이러한 베타세포의 파괴를 방해할 수 있는 쌍둥이 세포를 발견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현재 진행중인 인체실험의

효율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들 세포의 메커니즘을 보다 잘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세 번째의 연구축은 시험관 내에서 베타세포의 배양에 필요한 성장요소들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지는데, 이는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의 췌장 속에 이를 주사하여 파괴된 세포를 대체한다는 의도이다.



영국

콩 보충제, 당뇨병 여성 심장병 차단

제 2형 당뇨병이 있는 폐경여성이 콩 보충제를 복용하면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당치가 개선되어 심장병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영국 혈 왕립의료원의 비제이 자야고팔 박사는 미국의 당뇨병 전문지 '당뇨병 치료'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폐경여성 당뇨병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자야고팔 박사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친 임상실험이 필요하겠지만 이 실험결과는 건강한 여성에 비해 심장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4배나 높은 당뇨병 여성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폐경여성들에게 호르몬 치환요법이 심장병 위험을 줄이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체요법으로서 콩 보충제 복용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자야고팔 박사는 지적했다. 자야고팔 박사는 당뇨병을 앓고 있는 폐경여성 32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에겐 12주 동안 콩단백질 30g과 콩의 항산화성분인 이소플라본 132mg이 함유된 콩 보충제를, 또 다른 그룹에겐 위약을 복용하게 하고 그 다음 12주는 두 그룹이 서로 바꾸어 복용하게 했다. 결과는 콩 보충제 그룹이 혈중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4%, 악성 콜레스테롤인 저밀도지단백(LDL)이 7% 각각 줄어들었고 공복시 인슐린도 8% 줄어 장기적인 혈당조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혈압, 양성 콜레스테롤인 고밀도지단백(HDL), 트리글리세리드에는 변함이 없었다.



덴마크

어유, 당뇨병 환자의 혈액개선

어유(魚油)를 섭취할 경우 당뇨병 혈액의 함유된 지질의 비정상적인 특성을 개선할 수 있

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덴마크 왕립수의과·농과대학의 마틴 페테르센 박사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연구결과는 당뇨병 전문지 '당뇨병 치료'에 소개됐다.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액은 정상인의 혈액에 비해 높은 지질함량을 보인다. 그러나 우리 몸에 유익한 고밀도 지단백질의 수치는 오히려 정상인보다 낮은 경향을 나타낸다.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어나 고등어 같은 어류에 함유된 지방물질을 섭취할 경우 제 2형 당뇨병 환자의 혈액상태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번 연구는 42명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매일 4g의 어유를 8주에 걸쳐 섭취시킬 경우, 얻어지는 혈액개선 효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이처럼 어유를 섭취하면 인체에 유해한 저밀도 지단백질의 수치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인체에 유익한 고밀도 지단백질만 선택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심장병과 관련된 혈중 트리아실글리세롤의 수치는 오히려 떨어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어유를 섭취하더라도 총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저밀도 지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참고로 총 콜레스테롤 가운데 저밀도 지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은 심장병 위험을 평가하는 인자 가운데 하나로 활용된다. 이 같은 일련의 결과들은 어유를 섭취함으로써 제 2형 당뇨병에서 관찰되는 비정상적인 혈중 지방 상태인 저지혈증을 부분적이나마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연구진은 밝혔다.※